



이제 곧 여름!!

나도 간다!!!

팀타율 팀출루율 팀장타율
.274 .352 .403 홈런40 도루25 득/G 4.9
선발방어율 7.44 계투방어율 6.05 (한화)

.280 .355 .407 홈런46 도루37 득/G 5.2
선발방어율 5.85 계투방어율 4.38 (kt)

.289 .364 .461 홈런51 도루36 득/G 5.4
선발방어율 4.78 계투방어율 5.13 (KIA)

.291 .371 .437 홈런46 도루42 득/G 5.3
선발방어율 5.63 계투방어율 5.35 (롯데)

.291 .371 .425 홈런40 도루38 득/G 5.6
선발방어율 5.74 계투방어율 5.39 (삼성)

.272 .349 .404 홈런40 도루32 득/G 5.1
선발방어율 5.58 계투방어율 4.83 (LG)

.272 .343 .418 홈런55 도루28 득/G 4.8
선발방어율 4.30 계투방어율 4.48 (SK)

.278 .351 .414 홈런39 도루44 득/G 5.1
선발방어율 4.38 계투방어율 4.19 (넥센)

.296 .380 .451 홈런51 도루29 득/G 6.0
선발방어율 4.68 계투방어율 3.43 (NC)

.311 .392 .487 홈런60 도루30 득/G 6.7
선발방어율 4.10 계투방어율 4.49 (두산)

까아아아!!

밀지마! 제발!!

자, 내가 사이 좋게 정리해 줄게!!

이런덴 처음이야...

나갈 수 있을까?

나가야 하는데...

나가! 나가자!

하아, 두 번 다시 들어가기 싫어...

왜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냐?

※ '돌직구'는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강팀 성공모델 '두산 웨이'의 3가지

집중점점 | 두산의 놀라운 득주

3년 후 5년 후 상황에 맞춘 선수 육성
내구성 갖춘 기본에 충실한 투수 선호
잠실구장 역발상 '장타의 팀'으로 변화

2005년 준우승은 시작이었다. 2007~2008년 연거푸 우승을 놓쳤다. 2013년은 더 억울하게 졌다. 우승 일보직전에서 2%가 모자랐다. 돌이켜보면 두산은 좌절하지도 않았고, 불운으로 치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완했다. 그 결실이 2015년 맺어졌다. 그 리고 올해, 이제 '두산 웨이'는 KBO리그를 넘어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성공모델로 정립되고 있다.

●육성

두산은 문제가 발생하면 답을 내부에서 찾는다. 두산은 원래 좌완이 희귀한 팀이었다. 두산이 약점을 극복하도록 타 팀들이 도와줄 리가 없었다. 두산은 핵심자원을 유출하는 트레이드나 큰 돈을 써야 하는 프리에이전트(F

A) 대신, 긴 시간을 들여 선수를 키웠다. 이제 두산은 우완보다 좌완 옵션이 더 많은 팀이 돼 있다.

두산은 스카우트 과정에서 팀의 3년 후, 5년 후 상황에 맞춰 선수를 선택한다. 두산의 시나리오 경영은 선수의 군 입대 타이밍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두산은 신인과 군제대 선수가 들어오면 기술훈련이 아닌 체력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킨다. 1군에서 땀 체력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두산의 방식은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기본

두산은 잠실구장에 최적화된 짧고 강한 야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육성으로 한계가 있는 투수진은 외국인투수, 트레이드, FA로 보강한다. 투수친화적 잠실구장과 강한 수비능력이 겹치겠기에 두산은 투수를 고를 때, 화려한 강속구투수보다 꾸준한 내구성을 갖춘 투수를 선호한다. 에이스 니퍼트를 제외한 두산 투수 대부분은 이 혜택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두산의 선발야구는 기본에 충실한 야구를 하는 김태형 감독의 야구관과 일치한다.

●변화

30일까지 두산은 60홈런으로 팀 홈런 1위다. 가장 홈런이 어렵다는 잠실을 홈으로 사용하면서도 김재환(14홈런) 민병현, 양의지(이상 10홈런) 에반스(8홈런) 오재일(7홈런) 등 장타력을 갖춘 팀으로 혁신됐다. 큰 구장에서 거포의 위력을 강화하는 역발상이다.

두산의 팀 장타율은 0.487로 2위 NC(0.451)를 압도하는 1위다. 출루율을 합친 팀 OPS(0.879) 역시 1위다. 300득점을 돌파(320득점, 215실점)한 유일한 팀이다. 득실점의 차이가 105점에 달한다.

두산그룹은 주류 등 소비재 회사에서 중공업 회사로, 이제 면세점 등 유통업으로 주력업종을 계속 바꿔나가며 제계 10위권 대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모기업처럼 두산 야구단도 팀 컬러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강자의 조건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미지의 시대에 야구단은 대기업의 첫 인상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산 야구단은 당기순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투아웃 이후가 더 무서운 두산

2사 후 167득점·타율 0.328 '압도적 1위'
시즌 60홈런 중 25개 폭발 '집중력 최고'

'9회말 2아웃부터'라는 말처럼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긴 시점에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야구다. 이는 선두 두산을 상대하는 팀이라면 반드시 되새겨야 할 말이다. 두산은 2사(死) 후 공격에서 월등한 집중력으로 상대의 빈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

30일까지 두산의 2사 후 타격지표를 살펴보자. 두산이 2사 후에 올린 득점은 167점(전체 1위)으로, 전체 팀득점(320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사 후 타율 역시 0.328로 전체 1위다.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2사 후 득점 2위 한화는 두산에 30점 이상 뒤진 135점이고,

2사 후 타율 2위 삼성은 3푼 가량 낮은 0.297다.

더 놀라운 기록은 홈런이다. 두산은 올 시즌 총 60홈런 가운데 25개를 2사 후에 터뜨리며 상대투수들을 괴롭힌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20홈런을 넘긴 팀은 두산이 유일하다.

이는 중심타자들이 제 역할을 해줬기에 가능한 기록이다. 민병현과 오재일, 김재환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긴 시점에 홈런 6방씩을 나란히 쏘아 올렸다. NC 에릭 테임즈와 함께 부문 공동 1위. 오재일의 경우 개인 7홈런 중 6개를 2사 후에 날릴 정도로 집중력이 높았다. 타율에선 규정타석을 넘긴 선수들 중 민병현(0.397)과 김재환, 오재일(이상 0.357)의 활약이 돋보였다.

올 시즌 KBO리그 '2사 후 공격 지표'							
	타율	홈런	득점		타율	홈런	득점
두산	0.328	25	167	SK	0.275	18	97
삼성	0.297	11	128	kt	0.273	13	110
한화	0.293	13	135	NC	0.272	16	122
넥센	0.291	13	133	KIA	0.254	8	94
롯데	0.285	15	120	LG	0.252	11	103

※타율순. 30일까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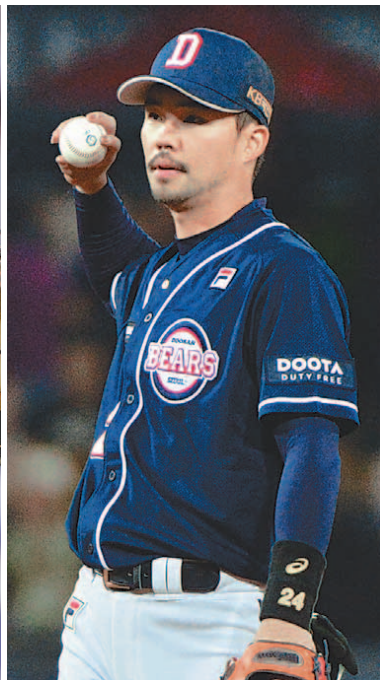
※타율순, 30일까지 기록

두산의 끈질긴 집중력은 최근 5연승 기간 중에 잘 나타났다. 24일 잠실 kt전부터 28일 잠실 LG전까지 뺏은 35점 중 18점이 2사 후에 나왔다. 특히 27~28일 LG를 상대로 한 2연승에선 8명의 주자들이 모두 2사 후에 홈을 밟았다. 안경현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아웃카운트에 상관없이 내 똘은 내가 해낸다는 의지가 두산의 전통적인 팀 분위기"라며 "최근엔 경쟁도 심해졌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모습이 더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양의지



오재원



김재호



정수빈

자타공인 두산 수비 "베이스볼 아이큐 높아요"

'내야 키맨' 김재호 수비 리딩능력 탁월
양의지·오재원·정수빈 센터라인 강해

두산 포수 양의지(29)는 김재호(31)를 두고 "우리 팀 전체 유격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친근감이 담겨있는 표현이었지만 김재호의 내야수비 리딩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배어있다. 현재 두산 내야진의 수비 '키맨'은 주장 김재호다.

김재호가 포수 양의지의 손가락 사인을 보고 전체 야수진의 수비 위치를 조율한다. 볼카운트마다 변화하는 두산의 역동적 시프트는 이렇게 선수들이 '알아서' 맞춰나간다. 두산 강석현 수비코치는 "다른 팀에서도 수비 시프트를 지도해봤다. 그러면 대개 코치가 지정한

자리에서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선수들은 다르더라. (코치가 일일이 다시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한) 선수들이 스스로 미처한 변화를 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타 팀 관계자는 두산의 수비에 대해 "BQ(베이스볼 아이큐)가 높은 팀이다. 아마 수비능력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두산이 꽤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산은 야구에서 등뼈라 할 수 있는 센터라인이 강한 팀이다. 포수 양의지부터 2루수 오재원, 유격수 김재호, 중견수 정수빈(혹은 민병현)에 이르기까지 야구를 알고 하는 시야와 감각을 지녔다. 두산 김태풍 단장은 또 하나의 내야 축 오재원에 대해 "나에게는 대로 야구를 하는 선수처럼 보이겠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그 나름의 깊이가 있다"고 말한다.

두산의 변화무쌍 시프트는 선수들을 틀 안에 넣지 않는 김태형 감독의 자율적 리더십 아래에서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 김 감독은 시프트에 대해 "수비코치와 선수들이 머리를 짜내 준비한 것에 대해 감독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야수진 거의 전원이 입단, 팜에서의 성장, 그리고 1군까지 오랜 시간을 같이 뛰어 동료들 간 신뢰도가 높다.

야수진의 수비능력이 강하다보니 두산은 투수를 선택할 때 옵션도 넓어진다. 수비가 강하더라도 땅볼투수를 뽑아도 되고, 투수친화적 잠실구장을 고려해 뜬공투수를 뽑아도 상대적 부담이 덜하다. 두산에서 투수 영입이나 육성에서 성공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주된 이유다.

김영준 기자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